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17, Vol. 3, No. 1, 119-146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대인관계 양상: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이 민 진† 정 진 복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외현적 자기애 집단과 내현적 자기애 집단의 대인관계 패턴을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모델(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SASB)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49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사측면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사랑, 자기보호와 더불어 자기공격의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사랑과 자기무시의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타인측면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와 타인 모두 비난 행동을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공격과 방임이라는 양가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자기측면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나 타인 모두 신뢰와 복종 혹은 관계 철수라는 양가적 모습을 보이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이 보이는 반응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은 타인에게 복종 혹은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이 대인관계 패턴에 있어 특징적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를 범주적 접근이 아닌 다각적이고 구체적이며, 역동적인 수준에서 살펴보았단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한국심리학회 주최 2012년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민진 / 덕성여자 대학교 심리학과 / (01369)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 E-mail : petitdark@naver.com

DSM-5가 출간 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출간되기 전 여러 장애들에서 변화가 예고되었었고, 성격장애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다. 그 중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 다른 성격장애들과 달리 현대 사회에 지나치게 만연되어 있어 일종의 증후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Lasch, 1979). 그러나 자기애성 성격은 정서, 공격성, 대인관계 손상, 인지왜곡, 통찰력 결손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특화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Miller, 2010).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자기애성 성격의 특성, 더 정확하게는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자기애성 성격 특성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이는 국, 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안, 지지되어왔다(박세란, 2004; 이준득, 2005; 조은영, 2011; Wink, 1991). 이를 바탕으로, DSM-5 논의 당시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기까지 하였다(Miller, 2010). 그러나 결국 큰 변화 없이 DSM-5가 출간되었다. 다만, 추가로 성격장애에 대한 대안적 모델이 제시되었고(예를 들면 차원분석), 이는 성격 기능의 손상과 병리적 성격 특질로 특징을 짓고 있다. 그 중 성격 기능의 손상 수준에 대한 평가를 들여다보면, 성격 기능의 요소는 자기와 대인관계이며, 이는 성격 병리의 핵심이다. 이는 연속선상에서 평가되며 현재와 앞으로의 역기능을 예측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2013).

비록, DSM-5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연구되어 온 결과들에 따르면, 자기애성 성격의 두 하위 유형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대인관계 행동영역이다. 외현적 자기애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면에 대해 관심이 없고, 깨닫지 못하며 오만하고 공격적이고 자기도취적이다. 때문에 대인관계 행동에 있어서 잘난척한다거나 거만하게 구는 모습이 자주 드러난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고 민감하며, 겉으로 보았을 때는 우울하거나 불안한 모습이 자주 관찰되고 수동적이고 적대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는 겉으로는 소위 '자기애적'인 모습 즉, 잘난척한다거나 거만하게 구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불안정한 높은 자존감이나 거대한 자기상, 강한 자기중심적인 특성이 존재하고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와 같이 특징적인 대인관계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여러 원형모델들이 제안되었는데 그 중에서 Benjamin(1974)이 개발한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형은 대상관계이론과 애착이론을 기초로 하여 한 개인이 초기 애착대상에서부터 이후의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대인관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관계적 접근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Alper, 1996; Benjamin & Winderlich, 1994; Erickson & Pincus, 2005; Lorr & Strack, 1999; Pincus, 1998; Smith, L., Klein, M.H. & Bentimain, L.S., 2003).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주된 영역은 자존감 유지와 대인관

계 행동이다. 자존감 유지의 경우 외현적 자기애는 적어도 의식 수준에서의 자존감은 매우 높다. 이들은 자신의 성취나 재능, 업적 등을 자랑하고 과시하며 이에 대해 칭찬과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존감을 계속 높이 유지하고자 한다. 또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거절에 대해서 분노 반응을 보이거나 그 사람을 나쁜 사람 혹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존감을 유지한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략은, 자존감에 손상을 입거나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을 아예 회피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과 표정 등을 유심히 살피게 된다(권석만, 한수정. 2000).

대인관계 행동의 경우 외현적 자기애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고 받아들여지는지 혹시 불쾌감을 주고 있지 않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지만,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에서의 자신의 위치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다. 전자가 타인의 반응에 대해 자각 없이 오만하고 공격적이고 자기도취적이라면, 후자인 내현적 자기애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매우 예민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려고 한다. 즉, 자존감 유지와 대인관계 행동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차이점이 있으며, 특히 대인관계 행동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타난다.

자기애와 대인관계

자기애성 성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애적인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들에게 자기애성 성격을 연기하는 사람의 비디오를 보거나 혹은 자기애적인 사람이 작성했다고 가정된 성격검사지 내용을 보고난 후 그 사람의 대인관계 매력 정도를 평정하였을 때, 자기애성 성격은 타인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였다(Carroll, Hoenigmann-Stovall, & Whitehead Ⅲ, 1996).

Robbins와 Dupont(1992)은 과대적이고 노출증적인 자기애성 성격성향자는 지배적이고 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한편 강한 이상화 욕구를 가진 자기애성 성격성향자는 순종적이고 다소 적대적인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 관찰자 평정에서는 과대감을 보이는 자기애성 성격성향자에서 지배적인 행동이 관찰되긴 하였지만 대인 친화적이라고 보지는 않았고, 이상화 경향성을 보이는 자기애성 성격성향자에서 복종적인 행동이 관찰되었지만 적대적 행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기보고와 관찰자 평정 간 차이는 현실적 자기 평가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강한 이상화 욕구를 가진 자기애성 성격성향자의 경우 관찰되는 것보다 더 반응을 억제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Kiesler, Van Denburg, Sikes-Nova, Larusm과 Goldston(1990)이 연구한 결과,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지배적이고 과시적인 대인관계 행동과 관련됨을 보였다. 또한 Bradlee와 Emmons(1992)는 자기애성 성격이 대인관계 원형모델에서 지배성 및 과시성과 관련성이 높고, 친교보다는 권력 축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임을 밝혔다. Kerr, Fatten, Lapan과 Hills(1994)는 두 유형의 자기애를 과대감과 이상화 욕구에 기반 한 것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대인관계 행동을 원형 모델을 통해 관련지어 보았다. 그 결과 이

상화 경향성을 띠는 자기애는 자기소멸적(self-effacing)인 방식의 대인관계 행동 경향성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고, 과대적 경향성을 띠는 자기애는 비관적이고 자기 고양적 행동과 정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수정, 1999).

국내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나누어서 살펴본 연구에서 강연우(2004)는 내현적 자기애는 다소 적대적이며 수동적인 대인관계를 보인 반면, 외현적 자기애는 지배적이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외현적 및 내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대인반응과의 관계를 알아본 강은정(2005)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대인반응이 잘 드러나는 부부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배우자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고,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배우자에게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볼 때, 대인관계에서도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에 비해 더 실제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거나 역기능적인 패턴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최혜정, 2008).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성격장애의 경우 한 성격장애의 모든 진단기준을 만족하면서 다른 성격장애의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같은 성격장애로 진단되더라도 그 모습은 다양하며 공존병리의 진단비율이 높은 것도 일반적이다(Bornstein, 1998). 사실상 임상 실제에서 가장 자주 진단되는 것은 '달리 구분되지 않은 성격장애'이다. 이는 현존하는 진단기준이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성격 기능을 제대로 감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Wesren, & Arkowitz-Westem, 1998). 또한 Morey(1988)의 연구에 의하면, 성격장애의 경우 임상가에게 자신의 환자에 해당하는 모든 증후를 체크하도록 했을 때 환자의 51.9%가 두 가지 이상의 성격장애 준거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성격장애에 있어 범주적 모델보다는 차원적 모델로써 성격장애를 접근하는 것이 성격장애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차원적 모델은 범주적 진단 모델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부적응적 성격 특질을 감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양적인 범주를 통해 사람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신민섭, 2010).

성격장애를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들 중 대인관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최근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Gurtman, 1992; Robbins & Dupont, 1992; Winggins & Princus, 1992). 임상장면에서 접하게 되는 환자나 내담자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심리적 갈등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며(Horowitz, 1996), 심리적 장애의 대부분은 사실상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촉발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Horowitz & Vitkus, 1986). 이러한 대인관계적 관점은 개인의 대인행동을 우호차원(친애-적대)과 통제차원(지배-복종)이라는 두 축을 가진 원형 위에서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제를 분류하고 기술할 수 있게 해 주며, 대인관계 패턴이 자기 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조작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대인관계적 관점은 개인을 역동적·관계적 관점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와 그 기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정남운, 1998).

Sullivan 등의 영향을 받은 Leary(1957)는 대인관계의 형태를 두 가지 기본적인 차원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힘의 작용(지배 대 복종)과 친교(사랑 대 증오)이다. Freedman, Leary, Ossario와 Coffey(1951)는 각각의 대인관계 특질이 건강한 측면에서 부적응적 측면까지 다양한 변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Leary와 Coffey(1955)는 이러한 원형에 기반을 두고 여섯 가지 성격장애에 관하여 기술하였다(신민섭, 2010).

Leary(1957)의 대인관계 원형모형의 발달과 별도로 애착이론가 Scheafer(1965)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원형모형(foster circumplex model)을 제안하였다. Scheafer의 모형은 우호차원(거부·증오-인정·사랑)과 독립차원(심리적 통제-심리적 자율)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Benjamin, 1996b), 이 모형은 다음에 기술할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형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었다.

대상관계 이론에 근거한 Leary(1957)의 대인관계원형모형과 애착이론에 토대를 둔 Scheafer(1965)의 모형을 결합하고, 정교화시켜 개발된 것이 바로 Benjamin(1974)의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형이다(박지희, 2005). 이 모델은 가장 정교하고, 임상적으로 유용하며, 개념적으로 모든 대인관계 모델을 아우르는 모델이며(Wiggins, 1982), 과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엄정한 방식을 채택한 모델(McLemore & Hart, 1982)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양혜라, 2011, 재인용).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형은 대상관계이론과 애착이론에 근거하며, 초기 경험의 대인관계 구조가 성인기 대인관계 패턴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전제한다. 또한, 인간의 정상적인 발달에 있어 애착(attachment)과 개별화(individu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다(Benjamin, 1996b). 대상관계이론과 애착이론은 대인간의 유대를 인간의 일차적인 욕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에 대해 부적응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곧 인간에게 심리적, 행동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병리적일 수 있다고 전제한다(Bowlby, 1977, 1982; Masterson, 1972, 1989). 이러한 전제는 대인관계에서의 적응양상을 통하여 그 개인의 정서·행동적 적응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게 해준다. 즉, 한 개인의 대인관계에 대한 탐색은 그의 심리적 문제를 개념화하는데 중요한 차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동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활동은 애착과 우호관계의 추구 및 탐색과 자발적인 분리-개별화의 두 가지로 본다(Bowlby, 1982; Kernberg, 1975; Mahler, 1975). 이러한 두 가지의 경향성은 개념상 상반되는 것 같으나, 한 개인이 심리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 균형적인 발달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두 측면은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구별하는 두 개의 중심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모델은 애착과 우호관계의 추구를 의미하는 우호성의 축과 탐색과 자발적인 분리-개별화를 의미하는 독립성의 축을 기준으로 하여 대인관계의 정도를 분류한다(Benjamin, 1996). 그리고 애착관계의 양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인간의 심리·행동적 적응성을 좌우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즉, 그 과정은 넓은 의미에서 대인적인 과정과 대내적인 과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개인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인(descriptive) 분류를 넘어서 보다 세부적인 해석을 제공한다(박제황 등, 1996).

이 모델은 이러한 개념을 세 개의 측면으로 나누어 개인의 대인관계 역동을 설명한다. 세 개 측면이란, 애착대상과의 경험 결과로 형성

표 1. 세 가지 측면에서의 행동유형

측면	행동유형	정 의
타인 (행동)	방임(Emancipate)	걱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는 태도
	긍정(Affirm)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태도
	적극적 사랑(Active Love)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해주며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어주는 태도
	보호(Protect)	상대방을 가르쳐주고 안내하며 돌보아주는 태도
	통제(Control)	모든 일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대방은 이에 따르게 하는 태도
	비난(Blame)	상대방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깎아내리며 비난하는 태도
	공격(Attack)	상대방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는 태도
	무시(Ignore)	상대방을 돌보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 태도
자기 (반응)	분리(Separate)	상대방과 관련시키지 않고 나의 방식을 택하고 알아서 하는 태도
	개방(Disclose)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부드럽게 말해주는 태도
	반응적 사랑(Reactive Love)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태도
	신뢰(Trust)	상대방을 믿고 의지하며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복종(Submit)	상대방이 원하는 무엇이든 양보하고 배려하는 태도
	부루퉁함(Sulk)	상대방의 요청에 화를 내고 못마땅해 하며 성의없이 반응하는 태도
	철회(Recoil)	상대방이 무척 싫어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태도
	단절(Wall-Off)	상대방에게 반응을 거의 안 해주고,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르려는 태도
내사	자기방임(Self-Emancipate)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해결하는 태도
	자기긍정(Self-Affirm)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
	자기사랑(Active Self-Love)	자신을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
	자기보호(Self-Protect)	자신을 가꾸고 개발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태도
	자기통제(Self-Control)	나 자신을 철저히 조절, 감시하고 일의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태도
	자기비난(Self-Blame)	자신의 잘못이나 열등한 부분에 대해 꾸짖고 자책하는 태도
	자기공격(Self-Attack)	자신을 싫어하며 무모하게 자신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태도
	자기무시(Self-Neglect)	자신을 돌보지 않고 비현실적 공상 속으로 빠져드는 태도

된 내면화된 작용모델의 종류를 의미한다. 이는, 대상에 따라 내사측면(interject), 타인측면(other), 자기측면(self)으로 구분된다. 그 중, 첫 번째로 내사측면은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태도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는 타인의 행동과 자신의 반응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내사되거나 혹은 타인의 행동을 동일시함으로써 형성된다. 상담관계에서는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타인측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경향성으로 이는 행동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한다"와 같이 타인이 타인에게 행하는 행동이나 태도의 경향성과 "나는 상대방에게 ~한다"와 같이 자신이 타인에게 행하는 행동이나 태도의 경향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타인을 향해 취했던 행동이나 태도의 경향성과 중요대상이 나를 향해서 취했던 행동이나 태도의 경향성 두 가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측면은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보이는 경향성으로서, 한 개인이 그의 애착대상과의 관계에서 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이 역시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자신의 자기측면은 자신이 타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이는 반응의 경향성을 의미하고, 중요 타인의 자기측면은 중요타인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보이는 반응의 경향성을 의미한다(박지희, 2005).

이러한 세 개의 측면 즉, 타인측면(행동측면), 자기측면(반응측면), 내사측면(심리내적 측면)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상대방이 자신에게 보이는 행동과 태도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반응을 좌우하며 또한 상대방이 자신에게 보이는 행동과 태도 및 자신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반응이 특정 양식으로 반복될 때 그것은 그 개인이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영향을 주어 하나의 경향성을 형성하게 된다(Benjamin, 1974). 각 측면에서 설명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은 표1에 제시된 바와 같다(조윤진, 2010).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모델로 본 자기애성 성격 분석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기애성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구체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Benjamin(1996)은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델을 통해서 자기애성 성격특성을 지닌 개인의 대인관계 역동을 관찰·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대인관계 및 심리내적 패턴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자기애성 성격 특성을 지닌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시와 통제의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타인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보호를 해주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복종을 하면, 그 대상과는 잘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이 그렇게 해주지 않거나 혹은 분리되려는 욕구가 방해 받을 경우 비난과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대인관계 패턴의 동기는 적극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고 이상화 대상에 대한 복종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Benjamin 2003; 서영석 등, 2014). 이은영(2005)의 연구에서도 자기애성 성격자들은 타인에 대한 비난(상대방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처벌함)의 행동이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상대방

과 관련짓지 않고 나만의 방식을 택하는(분리)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리는 특히 타인의 기분이 나빠진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상대방과 관련짓지 않고 나만의 방식을 택하고 알아서 하는(분리) 반응으로 타인과의 공감이 적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행동패턴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 다른 성격장애들과는 달리 자기개념에서 즉, 내사측면 부분에서 자기방치/무시와 자기통제의 양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영, 2005). 이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구분하지 않고 대인관계 특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반면, 이중묵(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애를 건강차원과 발달노선 차원의 유형으로 나누어 대인관계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건강하지 않은 자기애는 내사측면에서 자기무시, 자기비난, 자기공격, 자기방임의 패턴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이은영(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이러한 결과들과 더불어 국, 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애성 성격은 단일한 구조가 아니며, 대인관계 부분에서 명백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현적 자기애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깨닫지 못하며, 오만하고 공격적이고, 자기도취적인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고 민감하며, 겉으로 보았을 때는 우울하거나 불안한 모습이 자주 관찰이 되고, 수동적이고 적대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같은 자기애성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은 대인관계 행동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애성 성격을 두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대인관계 양식과 패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평면적인 분류가 아닌 차원적 분류로써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두 유형의 명백한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이며, 실제 치료 장면에 유용한 정보를 줄 것이다. 또한, 치료자에게 내담자의 대인관계 양식 및 자기 내면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치료 과정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계적, 역동적 진단도 가능하게 하겠다(김창대,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과제는 자기애성 성격의 두 유형인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과연 대인관계의 지표인 사회적 행동유형에서 비교될만한 차이가 있는지, 이 대인관계패턴이 자기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있다면 어떤 패턴으로 변별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성격장애의 분석에 최근 쓰이고 있는 Benjamin(1979)의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또한 역동적인 대인관계 패턴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내사측면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자기사랑과 자기무시와 같은 갈등구조를 가질 것이다. Kernberg(1975)에 따르면 자기애 성격자들은 극단적으로 자기를 경험하기 때문에 두 집단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 갈등구조를 가질 것이다. 다만,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나타나는 양상이 다른 바,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자기무시의 정도가 더 클 가능성이 있겠다.

둘째, 타인측면에서 외현적 자기애는 비난과 공격의 행동을 보이겠고, 내현적 자기애 역시 공격과 같은 적대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고 민감한 경향성이 상당하다보니 방임이나 무시와 같은 수동적인 공격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셋째,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이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면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측면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분리의 모습이나 성의 없이 반응하는 부루퉁함 태도를 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한수정(2000)에 의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타인의 반응을 살핀다고 한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는 복종과 같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맞추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처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대인관계패턴에 있어 차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2012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 소재의 4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70부를 제외한 530부를 회수 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43부를 제외한 497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323명으로 65%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174명으로 35%였다. 나이는 평균 22세였다.

측정도구

자기애성 성격 검사지(Narcissisim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황순택(1995)이 DSM-Ⅳ(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진단준거를 보완하여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개발한 척도 중 자기애 성격장애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성격장애와 공유하고 있는 특성도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준거에 포함시킨 공유 척도와 다른 성격장애와의 공유 특성은 모두 제외하고 자기애성 성격장애에만 해당되는 특성으로 구성한 비공유 척도가 있다(한수정, 1999). 본 연구에서는 변별진단을 정교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애성 성격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한수정(1999)의 연구 방법과 동일하게 공유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7점 척도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8점에서 12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개발한 척도로 황순택(1995)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68이었으며, 한수정(1990)의 7점 척도 방식에서는 .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Athk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문항으로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45점에서 2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

은 요인분석을 통해 목표 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이라는 5개의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중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은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이며,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은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박세란, 2004; 위혜정, 2008)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으로 분리하여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척도개발자들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이하** SASB)

자기애성 성향의 대인관계 패턴을 측정하기 위하여 Benjamin(1979)이 개발한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원저자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설문지 간략형 1(SASB Interx 간략형 1)을 양혜라(2011)의 연구에서 번안/사용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그 중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1) 자기개념에 대한 질문지(전체 16문항; 내사측면)와 2) 현재 중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을 묻는 질문지(현재 중요 타인관의 관계 64문항; 타인, 자기측면)만을 선택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질문지는 나와 타인이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의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체화된다.

이 설문지를 통한 대인지각과 자아 개념에 대한 측정은 중요한 경험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Benjamin, 1996a), 평균 신뢰도가 .82,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84(6주 간격)로 신뢰할 만한 안정성을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간략형 1의 경우 검사-재검사 상관관계(한 달 간격, N=12) 평균이 .79(SD=.20)로 신뢰할 만하다(Benjamin, 2000).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형에 대한 타당도 연구는 요인 분석 등의 방법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Benjamin, 1974, 1984, 1994, & 1995; Lorr, 1991; Lorr & Strack, 1999; Pincus, 1998; Pincus, Newes, Dickinson, & Ruiz, 1998), 이들 연구를 통해 내용 타당도 · 안면타당도 · 예언타당도 · 구성개념타당도 · 수렴타당도 등이 적합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SASB 검사에 대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드문 편이지만 간략형 질문지에 대한 박지희(2005)의 연구에서 한 달 간격 검사-재검사 상관계수가 0.79(SD=0.20)로 신뢰롭게 나타났으며, 김수임(200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설문지 간략형(SASB Interx 간략형)을 이용한 경계선 성격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내사측면 차이 연구에서 성격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해 낸 바 있어 타당도가 일부 입증되었다. 임진희(2003)역시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설문지 간략형 1(SASB Interx 간략형 1)의 타인 · 자기 · 내사 측면 질문지를 사용하여 폭식증 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유의하게 측정해 냄으로써 이 도구의 타당성을 부분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최근 양혜라(2011)의 연구에서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설문지 간략형 1(SASB Interx 간략형 1)의 타인 · 자기 · 내사 · 초기부모와의 관계 측면 질문지를 사용하여 부모화집단과 비교 집단의 차이를 유의하게 측정하여 이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절차

설문지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 총 18문항,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 총 45문항, 사회적 행동 구조분석(SASB) 척도 중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설문지 간략형 1(SASB Interx 간략형 1)의 내사, 자기, 타인 측면 총 90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총 140문항의 설문지를 서울과 경기 소재의 D, H, Y 대학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600명에게 실시하였다. 최종 자료 분석에서는 497부가 사용되었으며, 응답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집단은 자기애성 성격 검사와 내현적 자기애 성격 검사의 하위 요인 중 1, 4, 5번 요인의 점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을 선발하였다. 우선 자기애성 성격 검사의 결과를 통해 자기애성 성격 특성을 가진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 후 내현적 자기애 검사 중 1, 4, 5요인만을 이용하여 내현적 자기애 검사 점수가 상위 30%인 집단은 내현적 자기애 집단, 내현적 자기애 검사 점수가 하위 30%인 집단은 외현적 자기애 집단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은 자기애성 성격검사에서 상위 30%이상(72점)이면서 내현적 자기애 성격검사 하위 요인 중 1, 4, 5번에서 상위 30%이상(83점)인 경우로 40명, 외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은 자기애성 성격검사에서 상위 30%이상(72점)이면서 내현적 자기애 성격검사 하위 요인 중 1, 4, 5번에서 하위 30%이하(67점)인 경우로, 39명으로 집단이 만들어졌다.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형의 내사, 타인, 자기측면의 패턴 계수의 평균 차이 및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하였다. 그 후 외현적 자기애 집단과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형의 타인·자기·내사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인관계 패턴 특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의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형에서 군집 각각에 대한 평균 점수를 해당 군집에 대한 한 개인의 문항 점수로 간주하고, 이를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전산프로그램(Benjamin, 2009)에 처리함으로써, 외현적 자기애 집단과 내현적 자기애 집단의 패턴 특성을 나타내는 패턴계수를 산출하였다.

군집점수는 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집 모형의 정중앙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강한 강도를 의미한다. 이 군집점수는 대인관계패턴 유형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장점이 있으나 해석과정이 복잡하다. 따라서 군집점수가 갖는 정보를 보여주면서도 3개의 값으로 요약되는 패턴계수를 함께 살펴본다.

패턴계수는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질문지(SASB Intrex) 상의 점수를 매뉴얼(Benjamin, 2000, 2009)에 따라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전산프로그램(SASB 전산 프로그램)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패턴계수의 추정치의 범위는 '-1.00～1.00'이 되며, 그 값이 '0.90'이상이면 그 패턴의 특성을 확실히 갖는다고 볼 수 있고, '0.71'이상이면 그 패턴의 특성을 합당하게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일 경우 그러한 경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Benjamin, 2000, 2009).

결 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내사측면(나에 대한 나의 행동)에서의 차이 검증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내사측면에서 차이를 군집점수와 프로파일 정보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먼저 군집점수에서 두 집단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기분이 최상일 경우 자기방임(t=-1.54, ns)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기분이 최악일 경우 자기비난(t=-1.87, ns)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기분이 최상일 경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자기방임의 행동 유형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기분이 최악일 경우 모두 자기통제의 행동 유형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내사측면의 구체적인 구조의 차이를 보기 위해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형의 원형그래프와 프로파일 정보를 통해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구체적인 구조

표 2. 내사측면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행동유형 T 검증 결과

	차원	집단	M	SD	t		차원	집단	M	SD	t
기분이 최상일 때	자기방임	내현	65.5	25.7	-1.54	기분이 최악일 때	자기방임	내현	42.2	30.3	-2.48*
		외현	74.3	25.4				외현	59.7	32.2	
	자기공격	내현	49.7	24.1	-3.89***		자기공격	내현	33.0	25.5	-2.96**
		외현	71.2	25.0				외현	50.7	27.7	
	자기사랑	내현	68.5	23.0	-3.35**		자기사랑	내현	46.0	26.2	-3.21**
		외현	84.3	18.7				외현	65.6	27.9	
	자기보호	내현	65.0	24.4	-2.39*		자기보호	내현	40.2	25.0	-3.41**
		외현	77.4	21.4				외현	60.7	28.3	
	자기비난	내현	51.5	24.4	-2.19*		자기비난	내현	41.5	26.1	-1.87
		외현	63.0	22.4				외현	52.5	26.3	
	자기긍정	내현	47.2	26.6	5.14***		자기긍정	내현	61.0	25.2	4.13***
		외현	19.2	21.3				외현	35.6	29.1	
	자기무시	내현	45.0	32.5	4.67***		자기무시	내현	49.7	28.8	3.14**
		외현	16.4	20.1				외현	29.2	29.1	
	자기통제	내현	39.2	28.9	3.66***		자기통제	내현	48.2	28.0	2.73**
		외현	17.1	24.2				외현	31.0	28.0	

*p<.05, **p<.01, ***p<.001

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1을 살펴보면, 기분이 최상일 때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모두 자기방임의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자기사랑, 자기보호, 자기비난, 자기공격의 경향성이 더 있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자기긍정, 자기무시, 자기통제 경향성이 더욱 나타나고 있다. 기분이 최악일 경우 그림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모두 자기비난 경향성이 있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자기방임, 자기사랑, 자기보호, 자기공격 경향성이 더 있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자기긍정, 자기통제, 자기무시 경향성이 더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군집점수의 차이를 더욱 명료하게 살펴보기 위해 패턴계수와 프로파일을 산출하였다.

Benjamin(2000)에 의하면, 기분이 최악일 경우가 집단의 특성을 더 잘 나타낸다고 한 바, 기분이 최악일 경우에 대한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패턴계수와 프로파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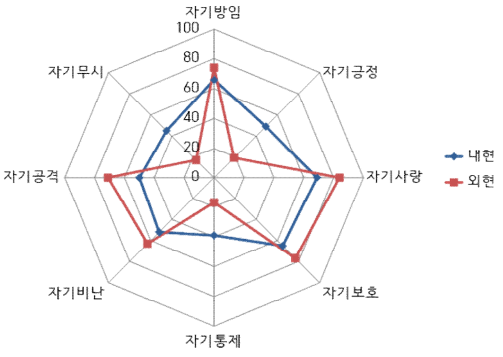

그림 1. 기분이 최상일 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내사측면 원형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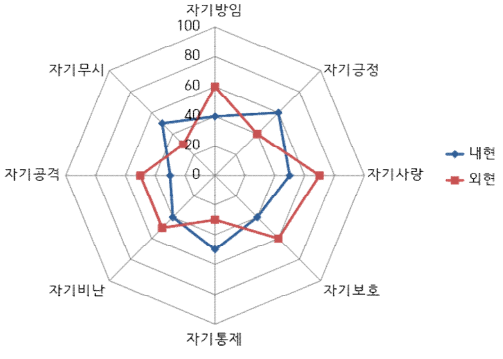

그림 2. 기분이 최악일 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내사측면 원형 그래프

표 3. 내사측면에 나타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성격 특성 집단의 기분이 최악일 때 패턴계수와 프로파일

	패턴계수	프로파일 번호와 특징	
외현적 자기애	공격성(ATK) = -0.44	2번	자기공격
	통제성(CON) = 0.29	8번	자기보호와 통제
	심리내적갈등(CFL) = 0.68	20번	갈등 : 자기긍정 vs 자기비난
	심리내적갈등(CFL) = 0.68	21번	갈등 : 자기사랑과 자기보호 vs 자기공격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ATK) = -0.55	2번	자기공격
	통제성(CON) = -0.23	6번	자기통제
	심리내적갈등(CFL) = 0.64	20번	갈등 : 자기긍정 vs 자기비난
	심리내적갈등(CFL) = 0.65	16번	갈등 : 자기사랑 vs 자기무시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3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공격성(ATK)-통제성(CON)-심리내적갈등(CFL)뿐만 아니라 해당 피험자에게 가장 알맞은 패턴(Goodness of Fit), 즉, 세 가지 패턴을 대표하는 대표 패턴계수 역시 함께 산출된다. 외현적 자기애 집단의 대표 패턴은 21번 프로파일로 '갈등 : 자기사랑과 자기보호 vs 자기공격'인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16번 프로파일로 '갈등 : 자기사랑 vs 자기무시'로 각기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타인측면에서의 차이

타인측면의 경우 1) 자신이 타인에게 한 행동과 2) 타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 두 가지의 행동양식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자신이 타인에게 한 행동

표 4의 결과와 같이 기분이 최상일 경우 방임(t=-1.83, *ns*), 비난(t=-.18, *ns*)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 기분이 최악일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군집점수를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나타낸 원형그래프 결과 및 프로파일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과 같이 기분이 최상일 경우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보다 긍정, 보호, 통제, 비난, 공격, 무시의 행동 경향성이 더 있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방임, 적극적 사랑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4와 같이 기분이 최악일 경우에는 외현적 자기애가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보호, 무시의 경향성을 경미하게 더 보이고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방임, 적극적 사랑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는 행동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군집점수의 차이를 더욱 명료하게 살펴보기 위해 패턴계수와 프로파일을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외현적 자기애 집단의 대표 파일은 공격성(ATK)의 4번 프로파일로 '비난'으로 타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심하게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 집단의 대표 파일은 심리내적갈등(CFL)의 17번 프로파일로 '공격 vs 방임'의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방에게 행동할 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행동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두 유형이 각기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타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

표 6의 결과와 같이 기분이 최상일 경우 비난(t=.526, *ns*)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최악일 경우에는 무시(t=2.573*, p<.05), 통제(t=2.494*, p<.05)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각 군집점수를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나타낸 원형그래프 결과는 이와는 다소 다른 결과였다. 그림 5와 같이 기분이 최상일 경우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적극적 사랑, 통제, 공격, 무시, 방임의 경향성이 더 두드러지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긍정, 보호의 경향성이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더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림 6과

표 4. 자신이 타인에게 한 행동에서 나타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행동유형 T 검증 결과

	차원	집단	M	SD	t		차원	집단	M	SD	t
기분이 최상일때	방임	내현	58.0	23.0	-1.83	기분이 최악일때	방임	내현	49.2	22.1	-.31
		외현	67.6	24.0				외현	51.0	27.3	
	공격	내현	66.5	21.3	-2.92**		공격	내현	39.0	18.5	-1.86
		외현	81.5	23.7				외현	49.2	29.2	
	적극적 사랑	내현	69.5	20.2	-2.43*		적극적 사랑	내현	41.7	19.5	-1.62
		외현	81.5	23.6				외현	50.5	27.8	
	보호	내현	57.7	22.5	-2.81**		보호	내현	43.5	22.5	-.92
		외현	72.8	25.0				외현	48.4	25.2	
	비난	내현	54.0	23.6	-.18		비난	내현	43.5	20.9	.26
		외현	55.1	30.4				외현	42.0	27.0	
	긍정	내현	28.5	28.1	2.78**		긍정	내현	43.2	29.0	1.98
		외현	12.3	23.2				외현	30.2	29.0	
	무시	내현	32.7	29.6	3.068**		무시	내현	38.0	28.8	.68
		외현	15.1	20.6				외현	33.5	28.4	
	통제	내현	27.5	26.7	2.35*		통제	내현	45.2	24.8	1.39
		외현	13.5	25.8				외현	36.6	29.7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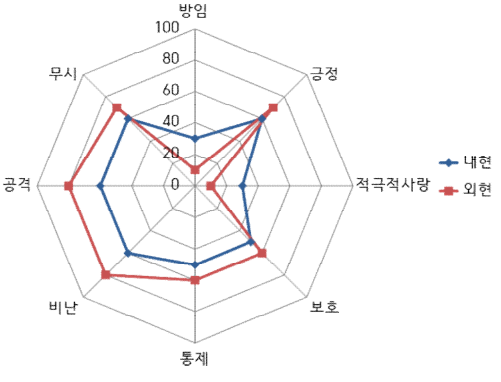

그림 3. 기분이 최상일 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자신이 타인에게 한 행동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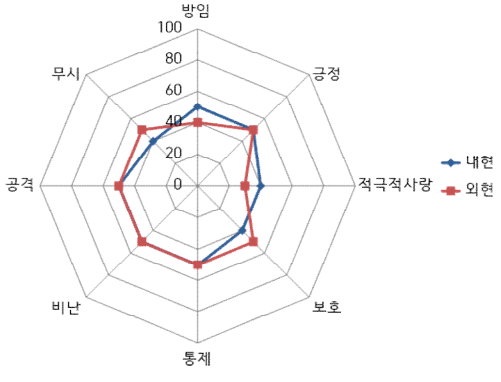

그림 4. 기분이 최악일 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자신이 타인에게 한 행동 그래프

표 5. 자신이 타인에게 한 행동측면에서 나타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성격 특성 집단의 기분이 최악일 때 패턴계수와 프로파일

	패턴계수	프로파일 번호와 특징	
외현적 자기애	공격성(ATK) = 0.60	4번	비난
	통제성(CON) = 0.42	6번	통제
	심리내적갈등(CFL) = 0.51	20번	긍정 vs 비난
	공격성(ATK) = 0.60	4번	비난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ATK) = 0.10	2번	공격
	통제성(CON) = -0.25	6번	통제
	심리내적갈등(CFL) = 0.28	18번	통제와 보호 vs 방임
	심리내적갈등(CFL) = 0.44	17번	공격 vs 방임

표 6. 타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에서 나타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행동유형 T 검증 결과

	차원	집단	M	SD	t		차원	집단	M	SD	t
기분이 최상일때	방임	내현	55.75	20.617	-2.891**	기분이 최악일때	방임	내현	48.00	25.033	-.621
		외현	70.26	23.895				외현	51.54	25.602	
	공격	내현	58.00	20.903	-3.907***		공격	내현	39.75	21.422	-1.244
		외현	76.92	22.142				외현	47.44	32.502	
	적극적 사랑	내현	60.75	21.169	-4.067***		적극적 사랑	내현	44.75	23.203	-.499
		외현	79.49	19.728				외현	47.69	28.970	
	보호	내현	56.50	18.474	-1.998*		보호	내현	43.75	21.802	-.359
		외현	66.41	25.182				외현	45.64	25.005	
	비난	내현	51.50	22.481	.526		비난	내현	49.00	22.049	.784
		외현	48.72	24.514				외현	44.62	27.419	
	긍정	내현	30.25	26.649	3.128**		긍정	내현	42.25	25.063	2.573*
		외현	13.85	19.278				외현	26.67	28.685	
	무시	내현	29.75	25.967	2.534*		무시	내현	39.50	25.616	1.020
		외현	15.90	22.445				외현	32.82	32.277	
	통제	내현	29.00	24.474	3.247**		통제	내현	44.50	22.640	2.494*
		외현	12.82	19.460				외현	30.00	28.746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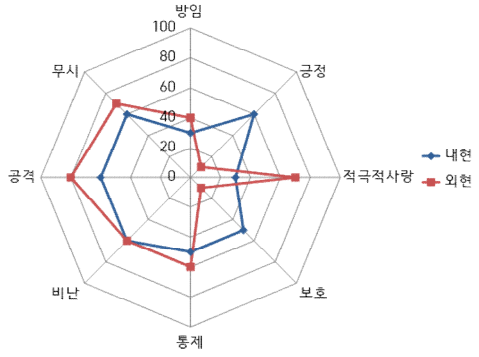

그림 5. 기분이 최상일 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타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측면 원형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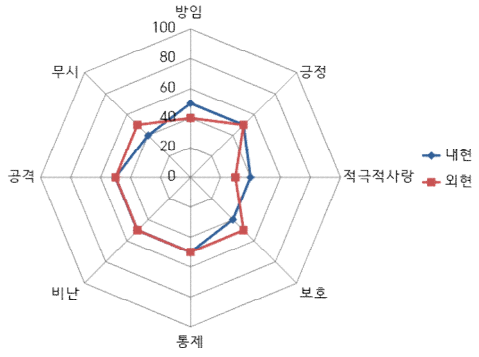

그림 6. 기분이 최악일 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타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측면 원형 그래프

같이 기분이 최악을 경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행동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외현적 자기애가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보호, 무시의 경향성이 더 있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방임, 적극적 사랑의 경향성을 더 보이고 있다. 이를 더욱 명료하게 살펴보기 위해 패턴계수와 프로파일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을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애는 공격성(ATK)의 4번 프로파일로 '비난'의 특징을 나타냈으며,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심리내적갈등(CFL)의 17번 프로파일로 '공격 vs 방임'의 특징을 보였다. 즉, 타인의 행동을 지각하는 것에 있어 두 집단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자기측면에서의 차이 검증

자기측면 역시 타인측면과 동일하게 두 가

표 7. 타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성격 특성 집단의 기분이 최악일 때 패턴계수와 프로파일

	패턴계수	프로파일 번호와 특징	
외현적 자기애	공격성(ATK) = 0.54	4번	비난
	통제성(CON) = 0.25	6번	통제
	심리내적갈등(CFL) = 0.44	20번	긍정 vs 비난
	공격성(ATK) = 0.54	4번	비난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ATK) = 0.36	2번	공격
	통제성(CON) = -0.25	8번	보호와 통제
	심리내적갈등(CFL) = 0.39	20번	긍정 vs 비난
	심리내적갈등(CFL) = 0.76	17번	공격 vs 방임

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신이 타인에게 보인 반응측면에서의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

군집 점수들을 T검증을 한 결과 기분이 최상일 경우 철회(t=-2.038*, p<.05), 반응적 사랑(t=-4.085***, p<.001), 개방(t=3.207**, p<.01), 단절(t=2.092*, p<.05), 복종(t=3.702***,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최악일 경우에는 복종(t=3.121**, p<.01)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원형그래프로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분이 최상일 때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분리, 단절, 신뢰, 복종의 반응을 더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개방, 반응적 사랑, 부루퉁함, 철회의 반응을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이 최악일 경우에는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단절의 반응을 더 보였으며, 내현적 자기애는 개방, 반응적 사랑, 부루퉁함, 철회의 반응을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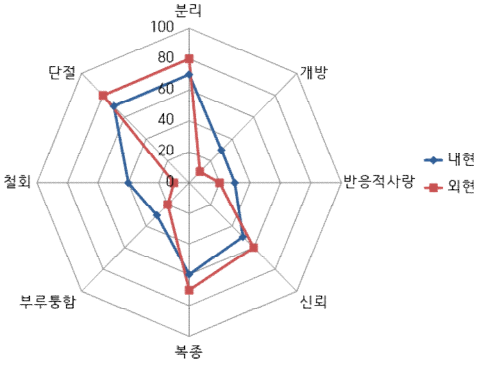

그림 7. 기분이 최상일 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자신이 타인에게 보인 반응 원형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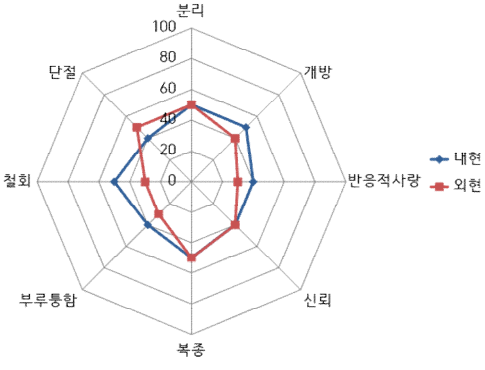

그림 8. 기분이 최악일 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자신이 타인에게 보인 반응 원형 그래프

표 8. 자신이 타인에게 보인 반응측면에서 나타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성격 특성 집단의 기분이 최악일 때 패턴계수와 프로파일

	패턴계수	프로파일 번호와 특징	
외현적 자기애	공격성(ATK) = -0.20	4번	부루퉁함
	통제성(CON) = -0.44	15번	심한복종
	심리내적갈등(CFL) = 0.78	9번	복종 vs 분리
	심리내적갈등(CFL) = 0.78	9번	복종 vs 분리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ATK) = 0.20	2번	철회
	통제성(CON) = -0.25	6번	복종
	심리내적갈등(CFL) = -0.28	18번	복종과 신뢰 vs 단절
	심리내적갈등(CFL) = 0.76	17번	화가 나서 복종 vs 떠나는 것

현적 자기애에 비해 더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을 패턴계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반응이 상대방이 원하는 무엇이든 양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내가 알아서 행동하는 분리의 태도 사이에서 갈등하는 구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화가 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 양보하거나 혹은 아예 단절 해버리는 행동 사이에서 갈등을 보이는 패턴이 나타났다.

타인이 자신에게 보인 반응측면에서의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

군집점수들을 T검증한 결과 기분이 최상일 경우 단절(t=1.620, ns)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분이 최악일 경우에는 개방(t=2.721**, p<.01), 복종(t=2.977**, p<.01)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원형그래프로 살펴본 두 집단의 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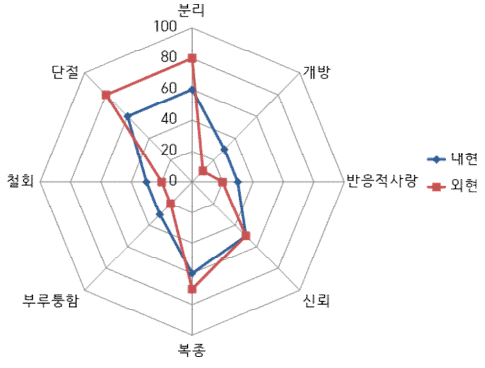

그림 9. 기분이 최상일 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타인이 자신에게 보인 반응 원형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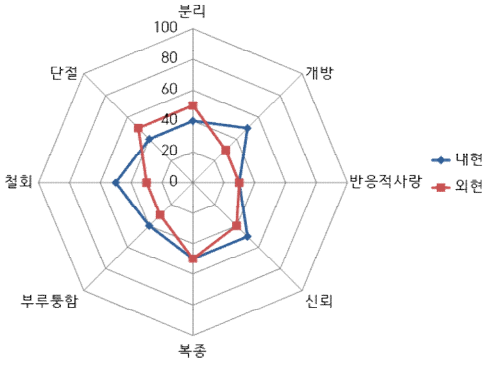

그림 10. 기분이 최악일 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타인이 자신에게 보인 반응 원형 그래프

표 9. 타인이 자신에게 보인 반응측면에서 나타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성격 특성 집단의 기분이 최악일 때 패턴계수와 프로파일

	패턴계수	프로파일 번호와 특징	
외현적 자기애	공격성(ATK) = 0.13	2번	철회
	통제성(CON) = -0.44	15번	심한복종
	심리내적갈등(CFL) = 0.84	18번	복종 & 신뢰 vs 철수
	심리내적갈등(CFL) = 0.84	18번	복종 & 신뢰 vs 철수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ATK) = 0.28	4번	부루퉁함
	통제성(CON) = 0.25	6번	복종
	심리내적갈등(CFL) = 0.29	9번	복종 vs 분리
	심리내적갈등(CFL) = 0.29	9번	복종 vs 분리

다음과 같다. 그림 9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분리, 복종, 단절의 모습을 더 보였으며,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개방, 반응적 사랑, 부루퉁함, 철회의 경향성을 더 보이고 있다. 반면, 그림 10의 결과와 같이 기분이 최악일 때를 보면,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분리, 단절의 모습을 더 보이고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개방, 신뢰, 부루퉁함, 철회의 모습을 더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애 집단은 심리내적 갈등 18번 프로파일로 '복종&신뢰 vs 철수'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 일관성 없는 행동 패턴을 나타냈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심리내적 갈등 9번 프로파일 '복종 vs 분리'의 특징을 보였으나 .29 (CFL=.29)로 행동 경향성이 상당히 낮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두 가지 하위 유형인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집단의 대인관계 패턴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SASB 척도를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다각적이며 역동적인 수준에서 대인관계 행동 패턴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내사측면(자기 자신의 경향성, 나에 대한 나의 행동)에 대한 자기애 집단의 각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분이 최악일 경우 외현적 자기애 집단과 내현적 자기애 집단 모두 자기비난의 경향성은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이점은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자기사랑, 자기보호, 자기공격의 경향성이 더 두드러지며,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자기긍정, 자기통제, 자기무시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나타나고 있다. 이는 즉,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유사한 역동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회적응 부분 등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 되는 바이다. 대표 군집 패턴 계수 결과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집단과 외현적 자기애 집단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하나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긍정하는 사이에서 갈등이 심하며,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무시하는 갈등의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쉽게 부끄러워하고 모욕감을 느끼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나 내적 세계의 핵심에는 자신을 과장하여 보이려는 비밀스런 소망과 관련된 깊은 부끄러움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Gabbard, 2005).

한편,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나 외현적 자기애 집단 모두 심리내적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ernberg(1975)에 따르면, 양극적인 자기경험은 자기를 거대한(전적으로 좋은) 자기로 느끼거나 고갈된(전적으로 나쁜) 자기로 느끼는 상반된 자아 상태의 반영이며, 자기애적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를 경험하는 것만이 자신의 내적 경험을 조직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즉, 외현적 자기애나 내현적 자기애나 '상당히 좋다' 혹은 '그만하면 좋다'는 느낌이 없는 것이다(정남운, 2008).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경향성에 있어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둘 다 자기 자신을 자기사랑과 자기공격이라는 극단적인 것으로 경험하기는 하나, 경험하는 것에 있어

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타인측면을 두 가지 행동 양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 중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행동 측면을 보면 군집에서는 기분이 최악일 경우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보호, 무시의 경향성을 상대적으로 더 보이고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방임, 적극적 사랑의 경향성을 더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는 행동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패턴계수와 프로파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현적 자기애 집단은 상대방의 행동 및 태도를 심하게 지적하고 깎아내리거나, 비난과 같은 공격의 행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집단 역시 상대방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인정사정없이 공격하는 태도나 상대방을 돌보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집단 모두 상대방에게 행동 하는 것에 있어 공격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이은영, 2005).

이러한 타인에게 하는 행동에서 두 집단 모두 공격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외현적 자기애 집단은 타인에게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고 타인의 반응을 차단함으로써 자기애적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 집단은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타인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열심히 연구하여 자존심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러한 행동들 자체는 자신의 과대망상적 환상에 대한 자기 자신의 불만이 타인들의 탓이라고 투사적으로 핑계를 대는 행동(Garbbard, 1983)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한 행동을 인식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군집에서는 외현적 자기애가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보호, 무시의 경향성이 더 있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방임, 적극적 사랑의 경향성을 더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군집의 모습을 프로파일로 더 상세하게 보면, 외현적 자기애는 비난의 특징을 나타나고 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 자신을 이해해주기 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비난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인정사정없이 공격하거나 아예 자신을 돌보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지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강은정(2007)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갈등상태일 때 배우자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며, 강연우(2004)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는 다소 적대적이며 수동적인 대인관계를 보인다고 한 것과도 일부 연결이 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을 그 핵심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고 있다(강은정, 2007. 재인용). 결국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상당히 민감한데 특히 편집증 환자처럼 비판적인 반응의 증거에 있어 상당히 민감한데(Gabbard, 2005) 이는 타인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 비판적인 반응의 증거에 민감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지각함에 있어 공격과 방임의 태도로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

러나 외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반응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타인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는다. 또한, 자신은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하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믿으며, 지나친 존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지각한다고 볼 수 있겠다.

세 번째로 자기측면 결과 중 내가 타인에게 보인 반응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 군집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분이 최악일 때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단절의 반응을 더 보이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개방, 반응적 사랑, 부루퉁함, 철회의 반응을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더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를 대표 패턴계수로 면밀히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애는 타인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고 생각되면 자신 역시 타인을 배려 혹은 양보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타인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느끼면 자신 역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의 행동을 양 극단에 놓고 생각하며, 자기가 보이는 행동 역시도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기분이 불쾌한 상태로 타인을 배려하거나 양보하며, 관계를 떠나거나 단절하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은영(2005)의 연구에서 자기애성 성격 집단은 다른 행동 유형에 비해 상대방의 요청에 못마땅해 하는 부루퉁함의 반응과 상대방에서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머무는 '단절'의 반응이 두드러지고, B군 성격 장애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분리'의 태도가 나타났다는 것과 일부 일치하는 바이다.

특히, 외현적 자기애의 프로파일에서 나타나는 이 분리의 반응은 결국 외현적 자기애 집단이 내현적 자기애 집단에 비해 타인과의 공감이 적으며, 타인의 반응에 무관심하고, 타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 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행동패턴으로 이해된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 집단의 화를 내면서도 복종하는 반응은 내현적 자기애 집단의 사람들은 남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민감하고, 타인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두며, 거부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도 복종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타인에게 복종 혹은 순종의 반응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분리나 그 관계에서 떠나버리는 형태의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애성 성격인 사람들의 중심적인 특성이라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는 특성으로, 영웅이나 뛰어난 사람을 감탄하고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자신을 이 뛰어난 사람의 부분으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사라지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윤순임, 2008).

다음으로 타인이 나에게 보인 반응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 먼저 군집을 살펴보면, 기분이 최악일 때 외현적 자기애는 내현적 자기애에 비해 분리, 단절의 모습을 더 보이며,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에 비해 개방, 신뢰, 부루퉁함, 철회의 모습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표 프로파일로 구성하여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애는 복종&신뢰vs철수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 일관성 없는 행동 패턴을 나타냈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복종 vs분리의 특징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경향성은 낮은 편이었다. 결국 외현적 자기애는 타인이 자신에게 보이는 반응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 자신을 우선시 하고 따르며, 편히 생각하는 것과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두 가지로 타인의 반응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을 따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있기는 하나 경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현적 자기애는 타인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에 있어 공감하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타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타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양 극단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타인이 자신에게 보이는 반응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외현적 자기애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기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자신을 믿고 따르거나 혹은 적대적으로 대한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양 극단으로 지각하다 보니 자신을 따르는 사람과는 잘 조화를 이루지만 타인이 자신을 공격 혹은 비난한다고 느껴지면, 순간적으로 비난과 공격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타인이 자신에게 보이는 반응을 인식하는 것은 특별한 패턴이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지 즉, 자신을 무시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기울이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타인이 원하는 것을 따르거나 혹은 아예 관계를 단절 시키는 행동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외현적 자기애는 Wink(1991)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신감에 차 있고 자신을 드러내며 적대적인 자기애이며, 내현적 자기애는 내성적이고 방어적이며, 불안해하고 외상에 취약한 특징을 가졌다고 한 것과 일치하는 바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외현적 자기애 집단 역시 대인관계에 있어 부적응적이고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대인관계 패턴이 공통된 행동패턴에서 정도에 차이만 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별적인 구조들이 존재하고, 비슷한 역동이 아닌 분명하게 구별되는 역동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심리적인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려 할 때 필요한 것은 범주적 분류에 의한 기술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한 가지 측면에서만 대인관계 패턴을 알아보는 연구나 문제 중심으로 분류하는 연구보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애의 대인관계 패턴을 보다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패턴을 봤다는 점에서 한층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과 관련된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애 성격 장애를 지닌 임상 집단에까지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Benjamin(1996)의 연구에서처럼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를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Benjamin이 주장하였던 행동의 상호작용 유형들을 상반성, 유사성, 대조성, 상보성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성격이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가 현재 대인관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기 시절 부모와 맺었던 상호작용이 성인기 대인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발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설문지(SASB Interx)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간략형·중간형·완결형의 세가지 형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및 실제 자료 수집의 여건상 간략형1의 양식을 사용하였으나, 간략형의 경우 내사측면에서는 한 문항이 하나의 군집을 타인과 자기측면에서는 두 문항이 하나의 군집을 대표하므로 내접합치도가 산출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 물론, 간략형이 신뢰도와 타당도 면에서 연구 결과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 매뉴얼(SASB 매뉴얼, Benjamin, 2000, 2009)에서는 중간형이나 완결형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중간형 또는 완결형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은 국내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이다. 그러나 대인관계 행동을 매우 구조적으로 창안한 검사라는 점에서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검사가 추후 성격진단에 유용한 도구인 만큼 국내에서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를 나눌 때 박세란(2004)의 연구에 의거해 집단을 내현적 자기애 성향 집단은 자기애성 성격검사에서 상위 30%이상(72점)이면서 내현적 자기애 검사 1, 4, 5요인에서 상위 30%이상(83점)인 경우, 외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은 자기애성 성격검사에서 상위 30%이상(72점)이면서 내현적 자기애 검사 1, 4, 5요인에서 하위 30%이하(72점)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외현적 자기애 성격 성향 집단을 50%이하로 나눈 것에 비해서 더욱 엄격한 규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외현적 자기애 집단과 내현적 자기애 집단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비교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 집단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 집단의 특성이 정확히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즉, Wink (1991) 등 임상가들이 제안한 자기애성 성격의 하위 유형 구분이 적절하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기애성의 두 집단을 대인관계 원형모델에서 가장 정교한 모델을 이용하여 두 유형의 대인관계 패턴의 특성을 측정해냄으로써 두 유형의 차이를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역동적 해석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대인관계 패턴을 구조적으로 확인하고 대인관계적 접근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차별적 구조를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안나 (2015). 자기대상욕구유형에 따른 대인관

계 패턴분석: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모형을 이용하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송원규 (2012). 사회적 행동의 구조 분석 모형을 적용한 회피성 성격과 분열성 성격 간의 대인관계패턴.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박혜원 (2016).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경계선 성격경향자의 대인관계패턴과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을 지닌 대학생을 위한 자기통찰-자기재양육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14(4), 969-990.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강은정, 장성숙 (2007). 자기애와 내현적 대인반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13-932.

김수임 (2003). SASB모형의 내사측면에 나타난 경계선적 성격특성.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지연 (1998).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대인관계유형 및 대인관계 적절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김창대 (1996). 한국 청소년의 관계유형분류를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박지희 (2005).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형에 나타난 경계선 성격특성의 여대생과 어머니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영숙, 김진숙 (2007).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형을 통해 본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이미지 및 대인패턴. 상담학연구, 8(3), 859-875.

양혜라 (2011). 부모화된 성인의 대인관계 패턴분석: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오홍석 (2007).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유형.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대학원.

위혜정 (2008). 완벽주의가 내현적 자기애성향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이은영, 황순택, 조윤진 (2008). 사회적 행동의 구조적 분석(SASB)모형에서의 성격병리와 대인관계패턴.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117-137.

이중묵 (2010). 자기애 특성에 따른 대상표상의 공격성과 통제성.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임진희 (2003). 폭식증 환자의 부모-자녀관계 및 내사측면에 대한 구조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조윤진 (2009). 연극성 성격특성을 지닌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행동패턴의 분석: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모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대학원.

황성훈 (2010). 자기애성 성격 성향자들의 자기구조 특성: 외현형 및 내현형 자기애의 하위분류에 따른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07-531.

Ainsworth, M. D. (1982). Attachment: Retrospectandprospect.InC.M. Parkes & Stevenson-Hinde(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pp.3-30). New York: Basic Books.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psychiatry, 139*(1), 12-2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3rd, revis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ition(DSM-Ⅳ)*.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e-Claire I, F. & Alpher, V. S. (1995).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and perceptions of caregiv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29,* 375-388.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Eds.), *Measure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Vol. 1, pp 219-225). California: Academic Press

Benjamin, L. S. (1974).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81,* 392-425.

Benjamin, L. S. (1982). Use of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SASB) to guide intervention in psychotherapy. In J. C. Anchin & D. J. Keisler(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therapy*(pp.190-212). New York: Pergamon Press.

Benjamin, L. S. (1984). Principles of prediction using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In R. A. Zucker, J. Aronoff, & A. J. Rabin(Eds.), *Personality and prediction of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Benjamin, L. S. (1992). An interpersonal view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J. Clarkin, E. Marzialli, & H. Monroe-Blum(Eds.), *Borderline psychology*, New York: Guilford.

Benjamin, L. S, & Wonderlich, S. A. (1994). Social percept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relation to mood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4), 610-624.

Benjamin, L. S. (1994). SASB: A bridge between personality theory and clinical Psychology. *Psychological Inquiry, 5*, 336-343.

Benjamin, L. S. (1995). Good defences make good neighbors. In H. R. Conte and R. Plutchick(Eds.), *Ego defences: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 John Wiley.

Benjamin, L. S. (1996a). Interperson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Guilford.

Benjamin, L. S. (1996b). A Clinician-friendly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ircumplex: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SASB).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2), 248-266.

Benjamin, L. S. (1996c).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203-1212.

Benjamin, L. S. (2000). SASB Intrex user's manual for short, medium and long form questionnaires. University of Utah.

Benjamin, L. S. & Cushing, G. (2000). Reference manual for coding social interaction in terms

of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University of Utah.

Benjamin, L. S. (2009). SASB Intrex user's manual for short, medium and long form questionnaires. University of Utah.

Carrol, L., Hoenigmann-Stovall, N., & Whitedhead Ⅲ, G. I. (1996).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narcissism. *Psychological Reports, 79,* 1267-1272.

Carrol, L., Hoenigmann-Stovall, N., & Whitedhead Ⅲ, G. I. (1997). Self-narcissism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to narcissistic others. *Psychological Reports, 81,* 547-550.

Emmons, R. A. (1981).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sensation seeking. *Psychological Reports, 48,* 247-250.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Gerlsma. C., Emmelkamp, P. M. G., & Arridell, W. A. (1990). Anxiety, depression, and perception of early parenting - A met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251-277.

Kernis, M. H., & Sun, C. R. (1994). Narcissism and reaction to interpersonal feedbac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4-13.

Klonsky, E. D., Jane, J, S,. Turkheimer, E,. & Oltmans, T. F. (2002). Gender role and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6*(5). 464-476.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Miller, J. D, Thomas. A, Widiger, W., Keith Campbell. (2010).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d the *DSM-V.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9*(4), 640-649.

Melissa Hakman, Mark Chaffin, Beverly Funderburk, Jane F. Silovsky. (2009) Change trajectories for parent-child interaction sequences during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for child physical abuse. *Journal Child Abuse & Neglect. 33,* 461-470.

Parent-Child Relationships - Infancy And The Preschool Years, Middle Childhood, Adolescence, Summary. Child Development Reference. Vol 6

Tamra E. cater, Virgil Zeigler-Hill, Jennifer Vonk. (2011). Narcissism and recollections of early life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935-939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446-462.

원고접수일 : 2016. 11. 25.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1. 22.
게재결정일 : 2017. 02. 15.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17, Vol. 3, No. 1, 119-146

The Analysis of Interpersonal Behavior Pattern for Undergraduate with Cover and Overt Narcissistic Tendencies: A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Min-jin Lee Jin-bok Jung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s between overt and covert narcissism by making a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SASB) from diverse angles. Four hundred nine-seven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in terms of introjection, the overt narcissists had a tendency to be torn between self-love, self-protection, and self-aggression, whereas the covert narcissists tended to be torn between self-love and self-ignorance. Second, the overt narcissists perceived that they often blamed others, and that others blamed them often as well. However, the covert narcissists found themselves to be torn between aggression toward others and laissez-faire, perceiving that others were also torn between aggression and laissez- faire. Third, with respect to oneself, the overt narcissists perceived that others were mainly torn between obedience, trust and relationship withdrawal, and found themselves to be torn between obedience and separation. In contrast, the covert narcissists scarcely knew how others responded to them, and found themselves to be torn between obedience resulting from anger and relationship withdrawal.

Keywords :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